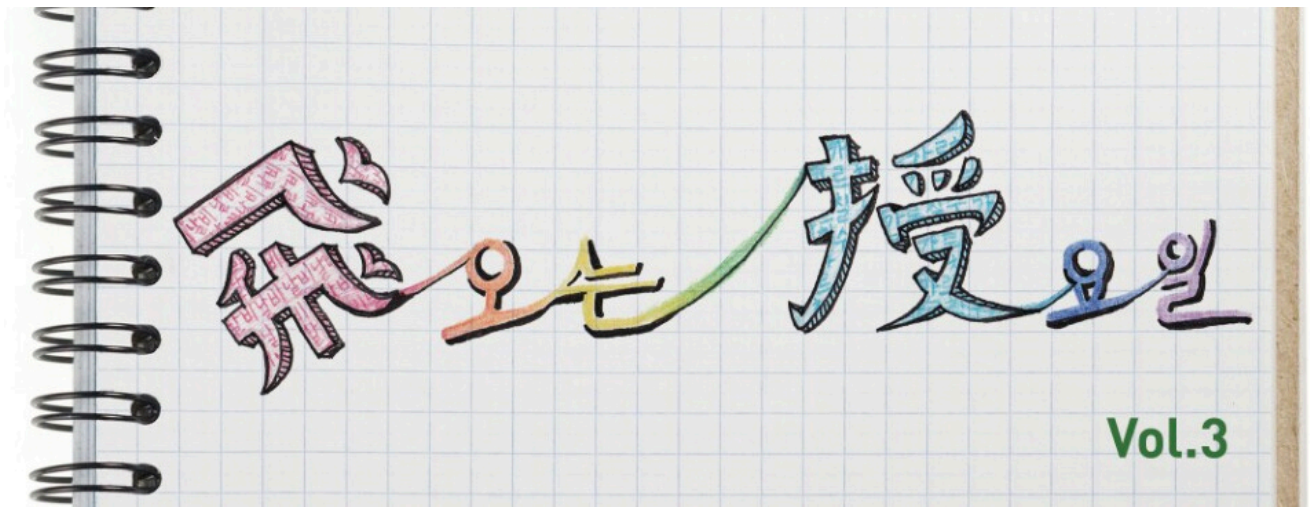




두번째 이야기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 릴레이 기고 1 - 그리스도인과 스포츠

나도 금메달?! 🏅

승리의 기쁨

중학교 때 꿈은 권투 프로모터가 되는 것이었다. 그 당시 홍수환, 엄동균 등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 전 국민이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내가 대한민국 전체를 동시에 기쁘게 하는 방법은 훌륭한 꿈나무를 골라서 훈련시키고 세계 챔피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어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가 인기가 있게 되고 더 이상 권투에 관심이 없어질 것을...



지난 달에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다. 나는 원래 조마조마한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응원하는 팀이 있을 때에는 시합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겼을 때만 뉴스 시간에 결과를 보고는 한다. 내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는 경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덩달아 기뻐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이겨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면 이 나이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나곤 한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인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를 일인가!



결승점을 바라보며

경기를 볼 때, 느끼는 다른 감정은 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그 곳에 집중하는 눈초리를 볼 때의 경이로움이다. 그들은 다른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 신경을 그 결승선에 집중한다. 그 눈매가 참 아름답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그 곳만을 바라보는가? 코치가 잘 싸운 선수를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오직 결승선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훈련, 또 훈련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스포츠 경기의 이름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각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또 다른 점은 그 스포츠에 가장 적당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서 나온다는 것이다. 와우! 그 상태로 몸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또 열심히 운동을 했을까를 생각하니 예선을 탈락한 선수라도 모두 승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BEE 사역자로 나는 얼마나 몸을 만들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근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물론 육적인 근육도 필요하긴 하지만) 순발력, 적응력, 성령 충만, 순종, 사랑, 은사, 섬김 등등 훨씬 더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며 이런 훈련을 동시에 받기는 한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훈련에 임하는가 하는 것이다. 힘든 훈련 과정 중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최선을 다하여

남자 스케이팅 경기 중에 0.0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 선수가 은메달로 밀리는 사태이니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면 ‘경이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쓰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때 생각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0.01초를 허비하고 있는가? 실생활에서는 0.01초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가름도 되지 않는다. 그런 눈 깜빡 할 새보다도 짧은 시간으로 메달 색깔이 바뀌는 것이다. 이왕이면 금메달을 따고 싶다. 0.001초라도 아끼려고 최선을 다 해야겠다. 결승선에 이르기까지는.

성장과 성숙

또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선수들이 모두 미남, 미녀라는 점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 시력이 나빠진 것인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봐서 그런지, 이제는 젊은 모든 이가 예쁘고 잘 생겨 보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체격도 좋고 인물도 뛰어 났다. 그러고 보니 BEE 가족들도 대부분 외모에서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내 생각이 항상 옳지만은 않지만. 아마도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 그러하리라. 이 모습 이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소망해본다.

팀워크

경기를 보며 느끼는 다른 점은 어느 경기이던 선수 혼자 하는 경기는 없다는 것이다. 한 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감독, 코치, 후원 팀, 의료진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한마음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돕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모르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응원하리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앞에 나서서 상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서로를 돌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역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세계 각지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나가 계시지만 이 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 그들은 매우 힘들게 사역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 그 분들이 맡겨 주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더욱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리라 확신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 곳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라며 등을 두들겨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글: 한숙영, 편집: 이경주)

BEE 소식

- 3월3일 본부에서 FTS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세요.

